

■ 'GAP TF팀 프랑스 연수' 를 다녀와서

# “GAP 참여는 선택 아닌 마지막 생존수단”

## 생산자조직 자체 품질관리 시스템으로 위기극복

국내 GAP(우수농산물인증제도) 제도 시행 3년째,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시행돼 온 GAP 제도가 내년을 기점으로 본 사업 시행에 들어간다. 본 사업 시행을 앞두고 그간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 보완과 향후 제도시행 방향을 설정하는 작업은 필수. 따라서 GAP 관련기관 및 실시기관으로 구성된 GAP TF 팀은 지난 4월, 유럽 GAP 제도의 벤치마킹을 위해 24일부터 30일까지 6박7일 일정으로 프랑스를 다녀왔다. 우리보다 앞서 시행하고 있는 프랑스의 GAP는 우리와 어떻게 다른지.. GAP TF팀에 참여하고 있는 본 협회 노봉래 사무국장이 이번 프랑스 연수를 다녀온 내용을 1,2부로 나누어 게재한다.

동쪽 끝에서 시베리아를 넘어 서쪽 끝까지 약 12시간을 날아 도착할 때 쯤, 아래를 내려다보니 초록색과 노란색의 들과 그리고 달력에서 보는 듯한 집들이 눈에 들어왔다. 저 넓은 노란색 들은 무엇일까 궁금해 하며 샤를 드골공항을 빠져나와서 버스를 탔다. 봄비가 내리고 어둑해진 프랑스 파리의 첫 인상을 머리에 각인시키며 1주일간의 연수가 시작됐다.

### 형지스 농산물 도매시장 공정거래위가 품질관리

다음날 유럽 제일의 형지스(Rungis) 국제농산물 도매시장을 견학했다. 우리로 말하자면 가락시장과 같은 곳. 다른 점은 청과물 도매시장이 마치 대형 할인매장처럼 잘 정돈돼 있고 깨끗하며, 모든 거래 시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정당한 세금을 내는 등 투명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 시장은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화훼, 정과, 수산, 축산 등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특이한 점은 생산이력을 농림부가 아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잔류농약은 보건당국에서 관리 감독한다는 사실이다. 농민을 보호해야할 농림부가 농민의 이력사항을 공정하게 단속하기는 어려워서라고 한다.

형지스 도매시장에서 우리가 연수할 브레타뉴(Bretagne)의 로스코프(Roscoff)로 향했다. 파리를 떠나 버스로 약5시간 가는 동안, 전날의 궁금증이 풀렸다. 하늘에서 본 노란색의 들과 유채꽃 밭이었다. 제주도에서나 보던 유채꽃이 밀밭과 함께 초록, 노랑의 장관을 이루어 낸 것이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유채꽃밭. 이 유채꽃으로 기름을

만들어 디젤유와 함께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한다고 한다. 유채꽃 밭이 끝나는 곳 나지막한 구릉지에서는 소, 말들이 한가롭게 놀고 있는 모습이 펼쳐진다.

프랑스의 서쪽 끝인 로스코프에 도착해 대서양의 짙푸른 바다가 바다다 보이는 곳에서 저녁을 먹고 밤 10시가 다 되는데 밖은 아직도 환하다. 위도가 우리보다 높아 하절기에는 밤10시까지도 환하고 대신 동절기에는 일찍 어두워지는 일명 백야란다. 둘째날, 협동조합, 농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세라펠(Cerafel)을 방문했다. 세라펠에서는 품목별 공급관리, 최저가격 설정, 품질관리, 수출보조금 관리 등을 하고 있으며, 브레타뉴의 왕자(Prince de Bretagne)라는 브랜드로 토마토, 꽃배추, 브로콜리 등 연간 출하량이 약3억유로(한화3천9백억원)이며, 산지경매장 3곳을 운영하고 있다.

### 수요자 요구에 능동적 대처 인증기준 변형 적용

브레타뉴 지역 농민들은 스페인, 폴란드 등 저임금국가들의 유럽공동체 가입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새로운 시장환경 변화에 맞춰 끊임 없이 노력했으며, 인간의 자발적의지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생산자조직의 재조직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왔다. 이러한 노력 중 하나는 세라펠에서 가지고 있는 품질인증제도인데 아그리



◆ 프랑스 브레타뉴 지역에서 GAP로 생산 출하되는 꽃배추를 품질관리사가 선별하고 있다.

공피앙스(Agri-Confiance)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아그리 공피앙스제도는 생산자조직이 얼마나 품질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소비자들끼리 갖고 있는 의문을 해소시켜주기 위하여 도입됐으며, 품질관리와 더불어 친환경적 요소를 부가하여 생산전반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농가는 평소 이 시스템에 따라 생산하다가, 대형유통업체가 원하는 인증 기준을 변형 적용하게 된다. 만일, 독일의 한 유통업체가 Eurep GAP을 원할 경우, 아그리 공피앙스의 일부 항목만 추가하여 GAP기준에 맞추어 수출하고, 영국의 TESCO사가 자체 품질인증시스템에 맞춘 농산물 공급을 원할 경우, 마찬가지로 일부 항목만 추가 적용하여 어느 유통업체의 요구던 간에 신속히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로 작목반 단위로 관리된다. 과거, 생산품에 대해서만 인증하던 것이 최근에는 생산, 선별, 출하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한 시스템에 대해 인증하려는 추세이며, 이는 최종 소비되기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스템을 객관적으로 인증하기 위해 스위스의 한 회사(SGS)를 통해 인증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육

종개발 등을 위한 연구소, 인력개발을 위한 교육장 등도 구비되어 있는 모범적인 생산자 조직이다. 생산자단체로서 우리 협회도 이러한 시설을 모두 갖추지는 못하더라도 자체 품질관리시스템을 가지고 생산자 조직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급선무라는 생각이 들었으며, 우리와 마찬가지로 프랑스도 농업인들의 인식전환을 시키기가 그리 쉽지는 않아, 일부 품목은 “품질인증을 하지 않아도 잘 팔리는데 귀찮게 그런 제도를 따를 필요가 없다”고 느껴 이 제도에 동참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세라펠의 지속적인 홍보로 소비자와 생산자들의 인식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우리가 GAP제도를 시행하면서 느끼는 문제점을 프랑스도 경험했으며 이미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었다.

### GAP로 더 받지는 못해도 가격 하락만은 막아

유럽의 GAP제도는 민간 인증시스템으로 농약, 비료 등 이력관리가 핵심인 생산품에 대한 인증시스템이다. 이 제도는 별도의 인증마크는 없으며, 독일 쾰른에 본부를 두고 있다. 유럽 GAP은 유럽 유통업체 연합회에서 설립한 FOOD FLUS에서 만든 품질관리 시스템이기 때문에 수요자측의 요구사항이 들어 있다. 또한 노동시간에 대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어, 출하시간 등을 고려하면 노동법 준수여부도 알 수 있어, 프랑스와 같이 노동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서유럽국가들은 이를

무기로 저임금에 기반을 둔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들과 경쟁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

실내에서만 하던 교육을 마치고 Eurep GAP에 참가하고 있는 Mr.살루를 찾아갔다. 마침 브로콜리 수확을 마치고 트랙터를 몰며 집으로 오는 중이었다. Mr. 살루의 재배면적은 30ha로 꽃배추, 브로콜리가 주 생산품이며, 꽃배추는 독일로 수출하기 위해, 독일 유통업체가 원하는 Eurep GAP을 시행하고 있다.

어느 나라든지 농사가 힘든 것일까? 이렇게 넓은 면적을 재배하지만, 월 순수입은 약 2천유로(우리 돈 약2백6십만원)라고 한다. 그리 많지 않은 수입이다. 하지만 부인도 벌고 있으므로, 생활하기는 괜찮다고 한다. 프랑스 역시 인건비가 비싸, 시간당 12유로(만삼천원)를 주어야 사람을 구할 수 있다고 한다. 반면에 폴란드는 시간당 1.5유로(이천원)이라고 하니, 우리나라가 중국, 동남아 국가와 경쟁에 있어 겪는 어려움을 프랑스 농가도 겪고 있음을 잘 알 수 있었다.

Mr. 살루는 “GAP를 하며 제일 어려운 점은 작업일지 작성인데, 컴퓨터를 통해 매일 매일 입력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가끔은 못할 때가 있어 한꺼번에 하느라고 애를 먹을 때도 있다”고 말해 우리 연수단은 우리 농가와 같은 상황이라는 것을 느끼며 한껏 웃을 수 밖에 없었다. 또한, “GAP를 해서 값을 더 받지는 못했지만, 최소한 가격의 하락은 막았다.”는 Mr.살루는 “GAP 참여는 선택이 아니고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며, 그래서, 귀찮은 일지작성, 저농약 사용 등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라고 말해 우리 농촌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농업의 절박함을 이곳에서도 느낄 수 있었고, 그 절박한 현실 속에서도 능동적인 이곳 농민들의 의식수준은 펴 인상 깊었다. GAP참여 동기가 가격을 더 많이 받고자 하는 것과 정부에서 추진하는 제도이니 전량수매는 물론 모든 것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우리농민들의 조금은 막연하고 수동적인 생각과는 분명 다른 부분이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또한 철저하게 규정에 따를 수 있는 것이다. 조합 역시 적극적으로 생산지도를 하고 있고 .... (다음호에 계속)

(노봉래 사무국장)

구분	아그리 공피앙스	Eurep GAP
주체	생산자	수요자
인증대상	생산 및 출하 과정	생산품
성격	공공적 성격	민간적 성격
인증동기	작목반	개인
특징	조합과 생산자 관계(조직)가 핵심	농약, 비료 관리기록이 핵심
필요서류	생산 및 품질향상 계획	요구사항 Check List